



20m 잘려나간 무등산 천왕봉

1925년 일본 오사카에서 발간된 '광주 무등산 사진첩'에 실린 천왕봉의 모습(왼쪽)과 현재 천왕봉의 모습. 100여년 전 사진을 공개한 김대현 전남대 국문학과 교수는 "2001년 천왕봉 방공포대 방문 당시 공군 관계자로부터 미군이 미사일 기지를 조성하면서 20m 가량 깎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대현 교수 제공>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업체 대표

“안전조치 부족 인정
과실은 다소 적다”

“일과 후 불필요한 작업 중 사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 심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제조회사 대표이사 A씨, 운영총괄사장 B씨, 생산부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밤 9시 10분께 20대 근로자 A씨가 1.8t짜리 철재코일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발생으로 노동청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장을 가동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사고와 관련 과실이 다소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사고 조치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과실이 적어 감형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A씨측 변호인은 “일과 시간 이후 불필요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보면 통상의 작업시설 설비 하자에 따른 중대재해가 아니다”면서 “작업중지 위반 부분도 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프레스 기계를 사용해 위반 관련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군부, 5·18 후 광주 학생들 동향 지속 관리

5·18 기념재단, 5·18 전후 전남대 학장회의록 공개

중정·505보안대, 80년 9월 개강 앞두고 시위 등 제지 위해 1주기 검은리본 착용 ‘문제학생’ 격리·학생 집결 제지 등 담겨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 세력이 지속적으로 광주 학생들의 동향을 관리했다는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앙정보부와 505보안대가 전남대에서 격렬한 시위와 저항운동이 발생하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 학장 회의 등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4일 5·18 기념재단(재단)은 1980년 5·18 전후 전남대 학장회의록을 공개했다.

재단은 5·18에 대한 학교측의 반응과 학생들의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남대·조선대 등 전국 10개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남대는 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5월 17

일까지 총 19건의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대학은 자료 부존재·비공개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문건 중 1980년 7월 7일 오후 6시에 열린 전남대의 ‘제 22회 학장회의록’에 주목이 된다.

‘개강 대비대책 및 실적’이라는 문건에는 지도교수제 강화, 학부모와의 협력관계, 학생과의 연락관계, 면학 분위기 조성, 일부 학생의 학술지도, 선도대상학생 지도, 대학간 협의체 구성, 교수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 7개 항목이 담겼다.

이 회의는 개강을 앞두고 학내 학사일정 등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라 사실상 학생 지도 대책을 수립하는 회의였다.

대학 간 협의체로 총학장협의회와 교무처과장협

의회, 학생처과장협의회, 자문기관협의회 등 4개 협의체로 구성된 것으로 적혀있다.

이 중 자문기관 협의회는 1980년 7월 8일 개최 예정으로 적혀 있고 비고란에 ‘교위’(전국교육위원회), ‘도경’(전라남도 경찰청), ‘CIA’, ‘계엄부소 505’가 기록돼 있다.

CIA는 당시 중앙정보부라는 것이 오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중앙정보부와 505보안대가 자문기관으로 학장들의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전두환이 국군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고 있었다. 전두환의 지시로 관계기관이 전남대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학생지도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 시위가 5월 항쟁을 촉발했기 때문에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신군부의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밖에도 5·18 1주기를 앞두고 학생이 추모의 의미를 담은 검은 리본을 착용할 때 따라 긴급 학장 회의가 소집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81년 5월 6일 학장회의록의 총장 지시란에는 ‘지난 5월 2일 일부 학생들이 검은 리본을 패용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어 긴급 학장회의를 소집하였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은 리본 패용, 추모회, 추모 수업거부, 추모단식 등 일부 학생의 단계적 확산’을 방지하도록 교직원들이 협력해 불행한 희생 학생이 생기지 않게 하자고 언급하고 있다.

동문과 서문에 통근차량을 배치해 문제학생 발생 시 격리 승차시키고 학생의 집결을 사전 제지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집합장소 접근을 극력 저지하고 집합장소에서 끌어낼 것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외에도 함께 공개된 5·18 이전 학장회의 자료도 중요자료로 평가된다.

5·18 하루전인 1980년 5월 17일 오전 총장실에서 열린 학장들의 회의록에는 민족민주쟁취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 16일 시위가 ‘질서있고 수준높게’ 진행됐다고 쓰여있다.

이는 광주지위 시위가 격렬해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여친 살해 해양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25년’

재판부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의 범행, 살인 고의 있어”

여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전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징역 25년 형을 유지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로 재직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5시30분께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친구 B씨(3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말투를 문제삼자 다툼을 벌이다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혼절시키고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가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

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A씨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목을 졸라 B씨를 기절시킨 후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화장실로 와 정신을 차린 B씨의 목을 졸랐다”면서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던 A씨가 B씨의 얼굴과 눈동자에 혈흔이 맺히는 것을 보고도 범행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겪었을 고통이 짐작조차 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고 유족도 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경찰 압수수색 때 피의자 참여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수사관 직무교육 권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사전 통지하지 않아 피의자들이 집행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4일 “전남지역 경찰서 2곳의 서장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통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은 “경찰

관이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BANK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행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다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3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온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